



2012년 5월, 전라남도 여수가 '세계속의 해양도시'로 거듭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10. 25~26) '발대식' 개최



시론 02

'건축3.0'과 '건축사 3.0'시대에 대한 단상 _ 박흥근
문화가 살아숨 쉬는 도시재생 _ 안용훈

기획 03

광주건축사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발대식 개최

특집기획 04-05

2012년 5월, 전라남도 여수가 세계속의 해양도시로 거듭난다

건축과 도시계획 06

세계의 신도시, 9부 카포레이, 캐슬라이나포리스트 _ 도영준

지역건축문화 07

공간문화, "c"형 전통 가옥 _ 김지민

설계경기 08

광주광역시 남구 푸른길도서관 건립공사 설계경기

사람 & issue 09

제3기 광주 건축사 Academy 원장! _ 양동현

제3기 광주 건축사 Academy 원장!
양동현 건축사와의 속 깊은 만남

광주건축사회, 제3기 건축사 Academy 개강

- 5. 17 오후 7시, 정동채 前 문화부 장관 강연
- 5. 31 오후 7시, 류춘수 건축사 강연



광주시 남구 푸른길 도서관

건축3.0 과 건축사 3.0 시대에 대한 단상斷想



박홍근 건축사
(주)모우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사업 전문위원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마켓3.0' 시대라 하고 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마켓1.0'에 머물러 있고, 일부는 '마켓2.0'을 선도하고 있으며, 아주 극소수만이 '마켓3.0'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3.0시장'을 먼저 느끼고 개척하는 자들에게,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초유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요지다.

지금은 진반적으로 불황이다. 건축 관련 업종은 더욱더 그렇다. 나도 그렇다. 1995년 설계사무소 개업이후 최고의 불황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2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 보았다. 필립 코틀러 교수가 쓴 '마켓3.0'이라는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건축 관련 일로 밥을 먹고사는 건축사가 생존하기 위한 '지혜는 없을까?'를 고민해 본다.

우선 '마켓3.0' 내용을 간략히 보자. 본문에서 시장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고, 그 진화의 3단계를 각각 '마켓1.0', '마켓2.0', '마켓3.0'이라 명명한다. 제품을 개발해 판매만 했던 '마켓1.0', 고객만족과 함께 제품 차별화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이 '마켓2.0'이라면, '마켓3.0'은 이성과 감성, 영혼을 지닌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가 제품에 가치를 입힌 것이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 '마켓3.0' 시대라 하고 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마켓1.0'에 머물러 있고, 일부는 '마켓2.0'을 선도하고 있으며, 아주 극소수만이 '마켓3.0'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3.0시장'을 먼저 느끼고 개척하는 자들에게,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초유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요지다.

호황기였던 '건축1.0' 시대와 현재의 건축2.0 시대를 지나...

건축업에 좋은 시절이 있었다. 짓기도 전에 분양이 마감되는 아파트 사업, 필요한 공간만 있어도 '좋다, 나쁘다'란 불평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적응하여 살던 시절, 그때가 '건축1.0' 시대였던 것 같다. 우리네 선배들이 누렸던 시절이다. 숙청 업자들에게 좋은 시절이었다. 시공에서도 눈 먼 돈들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어느 때부터 우리에게 소비자와 고객우선이란 단어가 친밀하게 다가오면서 건축은 '싸고, 빠르게 짓는 것만이 아닌, 필요한 공간과 기능과 디자인이 결부된 좋은 건축물들이 요구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야 만족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이 '건축2.0' 시대라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시대는 '건축2.0' 시대의 요구에 더불어 감동을 원한다. '싸고, 좋으면서 감동 있는 것은 없다'란 것을 알면서도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머리를 짜내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가치와 이야기를 담으려 제공해야 견딜 수 있다. 이런 시대가 '건축3.0' 시대가 아닐까 싶다. 우린 제값 받고 제대로 해주길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좋은 것을 싸게 얻는 것은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고객 우선 사회에서 이를 극복한 자만이 생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에게도 좋은 시절은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고객(건축주나 건설업자)이 찾아와 맡기는 일만 해도 사무실 운영에 충분한 시절이었다. 면허만 있어도 평생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다. 아마 그때가 '건축사 1.0'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 된다.

그러던 중에 국제화를 대비하고, 경쟁구도를 통해 대국민 건축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건축사를 양산했다. 그리고 그것이 IMF 경제위기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면허만 가지고 보장 받는 시대는 끝났다. 고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건축사가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출해야 하고, 그 일은 더 이상 간단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고객들은 주변의 인터넷과 속칭 수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비교하면서 건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어떤 경우엔 전문가를 능가하는 집학지식으로 무장한 경우도 있다. 건축사는 이를 조정할 지혜를 요구 받는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챙겨주고, 열심히 설계해주고, 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감리하고, 마무리 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대다. 고객만족 우선의 시대, 그렇지만 건축사에게 딱딱한 현재가 '건축사 2.0' 시대라고 봐진다.

건축3.0 과 건축사3.0 시대의 변화하는 물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

'건축사3.0' 시대는 '건축사2.0' 시대와 유사하게 고객만족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지만 이전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기능과 형태적 만족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감과 영적인 가치까지 담아내 줘, 감동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구한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까지 찾아서 챙겨주고, 다른 것과 차이를 만들어 내고, 이야기와 감동을 담아내기를 요구 받는 시대다.

그렇다면 '건축3.0' 과 '건축사3.0' 시대의 변화하는 물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

첫째,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자. 고객의 요구사항의 변화를 파악하자. 도시화·고령화·핵가족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참여와 협력의 시대, 문화와 영적가치를 마케팅하는 시대 등 우리 주변의 변화를 미리 읽고 준비하자.

둘째, 생존전략을 만들자! 인문학과 경영을 익혀 내공을 더 크게 하자. 건축과 건축설계·감리만 생각하는 체질을 개선하고 업역을 넓히자. 가치를 공유하고, 물량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 개편하여 부가가치를 높이자.

셋째, 사회적 전략을 만들어 이행하자! 사회·문화·정치적 변화 속으로 들어가 중심에 서자. 기업가정신으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 기존의 업역도 잘 관리하자. 친환경적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

넷째, 고객을 사랑하고 경쟁자를 존중하자! 적절한 가격에 훌륭한 완성품을 제공하자. 고객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성장을 도우며, 우리도 함께 성장하자.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자. ☞

향후, '건축'과 '건축사'가 시대의 변화하는 물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
첫째,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자!
둘째, 생존전략을 만들자!
셋째, 사회적 전략을 만들어 이행하자!
넷째, 고객을 사랑하고 경쟁자를 존중하자!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재생



안용훈 과장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살 맛 나는 광주,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주위에 작은 것에서부터 참여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콜로세움이나 파르테논신전 못지않은 세계인이 찾는 광주,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급성장하여 세계 12위에 랭크되어 올해 G20회의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명실공히 세계 20대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눈부신 경제발전 과정에서 생생한 그림자가 있다.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문제 등에서 특히 최저소득계층이 선호하는 임대아파트 대기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7만여 명에 이르고, 우리 광주는 전국의 10분의 1인 6,717여명이 입주할 위해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저소득층을 포함한 어려운 시민들에게 안정적 주거생활 영위를 위한 주택 문제 해결책은 무엇일까?

먼저 무주택자의 대다수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저소득자 임을 고려할 때 그들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그들을 보듬고 함께 가야할 동반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저렴한 임대주택 지속 공급, 열악한 노후 주택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 최저소득자에 대한 주택임대료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1,900여 년 전에 세워진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2,400여 년 전에 세워진 파르테논신전을 관람하기 위해 그리스를 방문한다.

그것은 아마 고대 건축물을 보면서 자율적인 시민 참여로 가꾸어진 도시정원과 광장, 거리 등을 거닐며 도시 전체를 느끼고 시민과 호흡

을 같이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관광객은 고대 건축물만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속에 녹아 있는 시민정신을 느끼기 위함 일 것이다.

또한 그들은 예술적 높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건축사 등의 계획과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민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도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듯이 선진도시를 직접보고 체험함으로써 후손에게 물려줄 생동감 있는 도시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살 맛 나는 광주,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주위에 작은 것에서부터 참여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콜로세움이나 파르테논신전 못지않은 세계인이 찾는 광주,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 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국비 683억 원을 이미 확보하고 주택 1,200호 건립을 목표로 힘차게 출발했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을 통한 이상과 꿈을 실현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에는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다시 찾고 싶은 광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살맛나는 광주로 재탄생을 확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

광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국비 683억 원을 이미 확보하고 주택 1,200호 건립을 목표로 힘차게 출발했다.

광주건축사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성공개회를 위한 시동 걸다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인사말

- 성공 개회를 다짐하는 발대식 거행
- "역대 그 어떤 대회보다도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건축사회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성공개회를 기원하는 핸드페인팅 행사



'전통문화연구회' 일주'의 물'을 주제로 한 퓨전 타악 '칠주' 공연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부회장이 회원들을 대표하여 성공개회를 위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발대식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발대식에 참석한 광주광역시 이병록 행정부시장과 강성익 회장, 이창섭 조직위원장 등 내·외빈들이 성공개회를 위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는 10월 25일, 26일 진행되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성공 개회를 위한 발대식이 지난 5월 11일 광주 신당파크호텔에서 열렸다.

광주건축사협회 3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과 광주광역시 이병록 행정부시장,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이창섭 조직위원장, 국토해양부 유병권 도시정책관 등 내외빈 및 광주건축사회원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격적인 발대식 행사에 앞서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성공개회를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는데 광주건축사회원들이 핸드페인팅으로 올해 대회 주제인 '時+文=建築'을 꾸며나가기도 했으며,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단체 '전통문화연구회' 일주'의 물'을 주제로 한 퓨전 타악 '칠주' 공연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모든 식전 공연이 마무리된 후 개식 및 행사소개와 함께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집행위원장인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의 내빈소개와 건축사대회 이창섭 조직위원장의 인사말, 강성익 대회장의 격려사, 광주광역시 이병록 행정부시장과 국토해양부 유병권 도시정책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강성익 대회장 격려사

이병록 광주시 행정부시장 축사

국토해양부 유병권 도시정책관 축사

이 자리에서 강성익 대회장은 "건축으로 대한민국 건축사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선보일 것을 약속드리며,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건축의 의미, 역할 그리고 나아가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록 행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많은 수많은 건축사님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며 "올해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시 또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올해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추진분과위원들에게 심상봉 집행위원장은 위촉장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모두 6개 분과 47명의 광주건축사회원들이 위촉되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사무소명
의 위 원 장	신정철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부 위 원 장	박종근	(주)모유 건축사사무소
기 획 분 과 위 원	김금진	(주)신하 건축사사무소
	박영진	건축사사무소 토형
	이광진	동진 건축사사무소
	이순미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장정민	(주)민 건축사사무소
	최 울	메스모유 건축사사무소

직 위	성 명	사무소명
의 위 원 장	이창섭	(주)에이 건축사사무소
부 위 원 장	정현수	(주)엑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현국	조형 건축사사무소 (주)
	김민호	(주)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후진	반석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범국	(주)다인 건축사사무소
	정재현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조연진	(주)현대 건축사사무소

재정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행사1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행사2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홍보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전시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직 위	성 명	사무소명
의 위 원 장	김희현	건축사사무소 우성건축(주)
부 위 원 장	정명철	(주)이엠티그림 건축사사무소
	김기택	간 건축사사무소
	김성현	간 건축사사무소
	김종철	영신(이)엔지 건축사사무소
	신현준	건축사사무소 우형
	주정호	종합건축사사무소 터
	서은경	건축사사무소 시영

직 위	성 명	사무소명
의 위 원 장	안태경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부 위 원 장	강석훈	건축사사무소 선명
	문강욱	건축사사무소 선명
	안진수	(주)한길 건축사사무소 누리
	이성현	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윤영환	이조 건축사사무소
	조희환	수전 건축사사무소
	최경만	한샘 건축사사무소

직 위	성 명	사무소명
의 위 원 장	김윤주	세에이그림 건축사사무소
부 위 원 장	안길현	(주)일우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관수	(주)보림 건축사사무소
	김성현	원우 건축사사무소
	김주연	주신 건축사사무소
	서재환	건축사사무소 선
	정관성	건축사사무소 자경재
	정성태	수전 건축사사무소

직 위	성 명	사무소명
의 위 원 장	강남규	강남 건축사사무소
부 위 원 장	장필서	(주)교인원 건축사사무소
	강동원	건축사사무소 다원
	마재환	(주)대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신영은	건축사사무소 사할
	정명환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한명석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위촉장 전달식에 이어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부회장이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발대식 선언문'을 광주건축사회원 대표로 낭독하며,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건축사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며, 국가의 격을 높이는 문화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건축사임을 선포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성공개회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발대식에 참석한 광주광역시 이병록 행정부시장과 강성익 대회장, 이창섭 조직위원장, 심상봉 집행위원장, 건축사대회 조직위원, 16대 시·도 건축사회장, 각 추진분과위원장 등의 기념촬영을 끝으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발대식'을 마무리 지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KIRA National Convention, 2012 Festival of Korean Architects)'가 '時+文=建築, "건축사, 삶을 짓다"'라는 주제 하에 기념식, 선포식,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등 다채로운 건축문화 이벤트로 대중과 소통을 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각종 기념식과 축하 행사에서 유명 연예인에 의존하던 과거 행사의 틀을 탈피하고 '아시아 문화심도시 광주'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상봉 집행위원장은 "무엇보다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을 찾은 외지인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사소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역대 그 어떤 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2012년
전북방문의 해

맛과 멋이 한상 가득 2012전북방문의 해

<http://www.gojb.net>

건축사님들의 전라북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 전라북도 건축사일동 -

순한 햇살, 정겨운 산과 들, 맛깔스런 밥상.

가장 한국적인 멋이 살아있는 예향(藝鄕),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전라북도만의 풍경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에게나 고향처럼 느껴지는

'5천만 마음의 고향' 전라북도.

2012년엔 전라북도로 오세요!

전라북도의 2012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12년 5월, 전라남도 여수가 세계 속의 해양도시로 거듭난다

- 2012 여수세계박람회, 5월 12일 개막해 8월 12일까지 여주시 신항 일대에서 진행
- 박람회 기간 동안 전 세계 1,000만 명의 인파가 찾을 것으로 기대, 20여개 전시관과 각종 체험시설,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 등에서 '바다'와 관련된 전시가 진행돼



**EXPO 2012
YEOSU KOREA**

- | | | | |
|-------------------|------------|------------|--------|
| 1 Big-O (빅오) | 8 해양문명/도시관 | 15 수변광장 | M 정문 |
| 2 EDG (엑스포디지털갤러리) | 9 해양산업기술관 | 16 해양광장 | E 동문 |
| 3 스카이라이프 | 10 국제관 | 17 에너지파크 | W 서문 |
| 4 주제관 | 11 국제기구관 | 18 수산체험장 | N 북문 |
| 5 한국관 | 12 지자체관 | 19 통합여객터미널 | C 씨게이트 |
| 6 해양생물관(아쿠아리움) | 13 기업관 | 20 고급숙박시설 | |
| 7 기후환경관 | 14 다목적공연장 | 21 엑스포타운 | |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실 제공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라남도 여주시 신항 일대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라는 주제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진행된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지구촌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히는 엑스포(세계박람회)는 지금까지 111회가 열렸는데 대부분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주최하였고, 아시아에서는 4번을 주최한 일본과 1번 주최한 중국(상하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93년 대전엑스포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세계 유력 방송사인 CNN과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 '런리 플래닛' 등에서 올해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될 정도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바다 위 전시관인 주제관을 비롯하여 106개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관 등 20여개 전시관과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 등 특화된 전시 시설을 통해 '바다'와 관련된 전시가 진행되고, 1일 90여회(총 8,000여회)의 문화·예술공연 또한 열린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행사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며, 주요 전시관과 문화·예술공연 및 볼거리, 예약 방법, 교통편 등을 소개한다.

주제 및 개최기간

-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 부제: 자연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활동
- 하위주제: 연안의 개발과 보전
새로운 자원 기술
창의적인 해양 활동
- 개최기간: 2012. 5. 12 ~ 8. 12 (93일간)
- 입퇴장 운영시간

구 분	개장 및 발매시간	매 표 마감시간	입 장 제한시간	폐장시간
출입구	09:00	20:00	22:00	23:00
매표소	08:30	-	20:30	21:00
전시관	09:00	-	20:30	21:00
에너지파크 원앙아름체험장	2012. 5. 12 ~ 8. 12	09:00	19:30	20:00
연안아름체험장 바다숲	09:00	09:00	18:00	18:30

개최 장소

-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신항 일대
- 면 적: 270만 m²(박람회장 25만 m²)

입지여건

- 서울 330km, 부산 160km, 광주 100km
- 여수공항 17km, 시청 8km, 여수역 0.5km

입 장 권

- 가 격: 성인 보통권 3만3,000원
(전체 9종-자세한 사항은 여수세계박람회 홈페이지 참고)
- 박람회 관련 모든 전시·공연 관람 가능
- 구 매: 온라인(판매대행사 www.interpark.com/
여수세계박람회 www.expo2012.or.kr)
오프라인(이마트/기업은행/광주은행 전지점)
- 수 령: 우편 배송(예매 시 신청 주소지/배송료 개인부담)
현장 수령(현장 매표소 혹은 무인발권기)

여수세계박람회 특징

- ① 바다의, 바다를 위한 박람회
- ②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Green)
- ③ 관광객과 함께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박람회
- ④ 짜릿한 감동과 체험의 문화(Culture) 박람회
- ⑤ 범지구적 협력과 공존의 박람회
- ⑥ 신나는 세계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박람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포스터

빅오

여수 신항 박람회장 앞바다의 방파제를 육지와 연결해 만든 빅오 해상공간에는 지름 35m 규모의 O형 구조물인 '디오(The O)', 초대형 해상분수, 자유자재로 물속에 잠겼다 떠올랐다 하는 해상무대인 '이어도' 등 쇼, 공연, 이벤트 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빅오(Big-O)의 'O'는 바다를 뜻하는 영어 '오션(Ocean)'의 이니셜이자 미래로의 시작을 의미하는 영어 'ZERO(0)'의 뜻을 담고 있다. 빅오 해상분수에는 세계최초로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한 리빙 스크린(Living Screen)기술이 도입되며, 레이저·화염 등 다의의 각종 멀티미디어 특수효과와 함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관

주제관은 국내 최초로 바다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다. 육지에서 보면 항우교래가 물 위로 솟구치는 모습이지만, 바다에서 보면 바다 가운데 있는 섬과 아름다운 해안을 형상화한 것으로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전시실 내부에는 20m 길이의 벽면 스크린과 지름 5m의 반구형 스크린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5대양의 모습이 실감나게 연출돼 실제 바다 속에 들어온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생명의 바다를 되찾은 소년과 듀공의 모험을 연출하는 메인 쇼는 주제관의 '하이라이프'가 될 것이다.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

움직이는 영화관 엑스포디지털갤러리는 박람회장 중심가에 위치한 디지털 거리로써 첨단 IT기술과 조형예술을 바탕으로 한 해양문화예술 갤러리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초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문화공간이다. 사진기, 심청전, 신지께여 인어이야기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꿈의 고래, EDG트위터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LED 스크린을 통해 상영된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관람객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이미지나 메시지를 전송해 참여할 수 있다.



스카이다워

박람회장 내에서 가장 높은 수직구조물인 스카이다워(67m)는 폐사일로(버려진 시멘트 저장고)를 재활용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문화공간이며, 여수세계박람회를 기념하는 영구시설로 보존될 계획이다. 특히 스카이다워는 산업화 시대 임무를 나하고 더 이상 활용도가 없어진 시멘트 사일로를 이용한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친환경박람회를 표방한

여수세계박람회 때 꼭 들어맞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카이다워의 외부에는 하프의 형상에 거대한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파이프오르간은 반경 6km까지 소리가 울려 퍼져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파이프오르간'으로 기네스 인증도 받았다.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6,030톤 수조에 300종, 34,000마리 이상의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바이칼 물범, 러시아 흰고래(벨루가), 해마, 해룡 등 세계적인 희귀종도 만나볼 수 있다. 국내 최초 지상층 아쿠아리움이자 친환경 아쿠아리움으로 자연 채광이 바다속 세계를 더욱 환상적으로 만들어준다. 전력 일부는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한다.

전시장은 바다동물관, 바다채플관, 에코테리움으로 구성되는데, 아마존 정글 속처럼 연출된 에코테리움에서는 피라루크, 피라니아 등 10여종을 만날 수 있고, 바다채플관에서는 16m에 이르는 대형수조 '딤블루씨'와 360도 아쿠아돔을 볼 수 있다. 그 옆에는 6,000마리의 정어리떼가 군무를 펼치는 대형 연초비수조도 있다.



한국관

거대한 태극 문양을 본 뜬 전시관과 영상관, 두 개의 공간에서 한국인의 해양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 준다. 전시관에서는 한 쪽의 동양화 같은 다도해의 풍광, 몽돌 해변, 갯가의 생업 현장, 바닷가 다랑이, 반구대 암각화와 장보고 이야기 등이 실제 스케일의 디오라마와 영상으로 펼쳐진다. 한편, 영상관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높이 15m, 지름 30m 돔 스크린을 통해 블록버스터 영화에 버금가는 압도적인 영상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여름에 영하 3℃의 남극 눈보라와 북극 빙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후환경관'과 해양 산업이 고부가가치임을 알리는 '해양산업기술관', 바다가 인류문명 교류와 발전의 주요한 루트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해양문명도시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바다의 가치를 알리고, 생명의 원천인 해양생물과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해양생물관' 등에서 다양한 전시 행사가 진행된다.

여수세계박람회 가는 길

2012여수세계박람회로 가는 길은 다양하다. 하늘길, 육지길, 바닷길 모두가 여수로 활짝 열려 있다.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여객선, 승용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여수를 오갈 수 있다.

- **항공**
여수로 가는 높고 빠른 길, 서울 김포와 제주에서 각각 출발한다. 여수공항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까지는 공항버스로 약 30분이면 도착한다.
» 소요 시간 : 김포 ↔ 여수(약 55분), 제주 ↔ 여수(약 45분)
- **기차**
여수로 가는 안전하고 낭만적이며 가장 빠른 대중 교통 수단이다. 2011년 10월 용산역-여수엑스포역간 전라선KTX가 개통,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여수엑스포역에서 내려면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입구가 바로 앞에 있다.
» 소요 시간 : 용산역(KTX) ↔ 여수역(2시간 57분) / 대전역(KTX) ↔ 여수역(2시간 6분) / 전주역(KTX) ↔ 여수역(1시간 20분)
- **고속/시외버스**
전국 곳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수공용터미널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약 15분 거리다.
» 소요 시간 : 수도권 ↔ 여수(4시간 30분), 전주권 ↔ 여수(1시간 50분) / 광주권 ↔ 여수(1시간 20분), 부산권 ↔ 여수(2시간 30분) / 목포권 ↔ 여수(1시간 30분)
- **승용차**
순천~완주,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의 개통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여수까지 가는 길이 더욱 편해졌다. 승용차의 경우 여수시 외곽 환승주차장에 주차 후 무료 셔틀버스로 박람회장까지 이동하면 된다. (20분)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여수 시내 버스로 주요 관광지인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무료로 연결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박람회를 구경하고 시내 관광을 즐기는데 불편이 없다.
- **자동차 접근 경로보기**

관객별 소요시간
수도권(서울시청) 3시간 55분 서울 → 천안JC → 논산JC → 익산JC → 완주JC → 동순천C → 여수
대전권(대전시청) 2시간 40분 대전 → 익산JC → 완주JC → 동순천C → 여수
광주권(광주시청) 1시간 20분 광주 → 순천C → 여수
부산권(부산시청) 2시간 10분 부산 → 냉정JC → 진주JC → 옥곡JC → 이소신대교 → 여수
목포권(목포시청) 1시간 30분 목포 → 함평JC → 해룡JC → 여수

※ 환승주차장에서 박람회장 간 무료 셔틀버스 운행

번호	구분	경로보기
1	엑스포 제1, 2환승주차장(여수산단)	순천-완주고속도로
2	엑스포 제3환승주차장(물촌산단)	남해고속도로
3	엑스포 제4환승주차장(순천신대)	광주-완주고속도로
4	엑스포 제5환승주차장(광양마동)	광양-완주고속도로
5	돌산 관광버스 주차장	여수-광양고속도로
6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광양고속도로



구분	주요내용	장소 / 비고
1. 뉴미디어쇼	· The Big-O내에서 연출되는 멀티미디어쇼	The Big-O 해역 / 야간상설
2. 해상쇼	· The Big-O 해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입체적으로 펼쳐는 Total Ocean Show	The Big-O 해역 / 주간상설
3. 특별 초청공연	· 국내외 빅스타 초청 공연	매주 주말 / 기요, 팝, 클래식 / 해상무대, 천막극장
4. 수상공연 페스티벌	· 물과 해상무대를 활용하는 국내외 아티스트 공연	해상무대 / 야간상설
5. 거리문화공연	· 거리·광장에서 열리는 공연 및 이벤트	거리, 광장 / 주간상설
6. 공식행사	· 개막식 : '12.5.11 · 개장식 : '12.5.12 · 국가의 날 : '12.5.12~8.11 · 지자체의 날 : '12.5.12~8.11 · 기업의 날(후원사의 날) : '12.5.12~8.11 · 한국의 날 : '12.8.1 · 폐막식 : '12.8.12	해상무대 / 정문 / 엑스포홀 / 전통마당 / 기업광장 / 엑스포홀, 해상무대 / 해상무대
7. 특별기획공연	· 국공립 문화예술단체, 민간 공연단체 공연물 유치·연계행사, 어린이 공연, 전통공연, 체험프로그램	천막극장 엑스포홀 다목적홀
8. 기타	· 참가국의 선박 전시 및 특별공연 (국가의 날 식후 문화공연 외 특별신청)	프로그램에 따라 장소배정

세계의 신도시_ 9부

민간기업 주도의 신도시_ 카포레이/ PUD 개념을 적용하여 민간기업이 개발한 위성도시_ 캐롤라이나포리스트

- 1부 : 개요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린피스 - 2011년 9월호
- 2부 :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수도 내피도, 캐나다 최초 기업도시 돈밀스 - 2011년 10월호
- 3부 : 간척지의 중심도시 및 주도 캘리슈타트, 세계안보정책에 의한 신도시 로스앨레모스 - 2011년 11월호
- 4부 : 대규모 기업도시 리포카라와치, 민간기업에 의한 단독주택단지 미션베이호 - 2011년 12월호
- 5부 : 첨단그린시티 바우반, 국토개발(담)을 위한 배후도시 볼더시티 - 2012년 1월호
- 6부 : 말레이시아 행정수도-사이버자야, 부동산 개발의 좋은 선례지-섬머린 - 2012년 2월호
- 7부 : 테마파크 배후 주거단지 - 셀러브레이션/ 골프장 중심의 데시벨 제로(0) 도시-시사이드- 2012년 3월호
- 8부 : 건축적 실험도시 - 알코산티/ 학원(대학)도시-애버마리아 2012년 4월호

Unincorporated Community of Kapolei

카포레이(Unincorporated Community of Kapolei)는 태평양 중앙부 미국 하와이(Hawaii)주 중앙부 호놀룰루(Honolulu)카운티에 위치한 신도시이며, 캐롤라이나포리스트(Unincorporated Community of Carolina Forest)는 미국 동남부 동쪽으로 대서양에 접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남동쪽 끝 호리(Horry)카운티의 동부에 위치한 신도시이다.

건축과 도시계획이란 지면을 개설하여 2011년 4월호부터 8월호까지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현숙 교수의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11년 9월호부터는 세계 여러 신도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도시계획 전문 기인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도영준 교수의 원고를 연재·기획하였다.

도영준 교수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urban-30@hamail.net



카포레이(Unincorporated Community of Kapolei)

태평양 중앙부 미국 하와이(Hawaii)주 중앙부 호놀룰루(Honolulu)카운티¹⁾에 위치한 신도시(new neighborhood)로 인구는 약 14천 명(2009년)이며,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KPD²⁾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 ② 최초의 계획적인 주거단지는 1980년대 후반 반원형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 ③ 먼저 개발된 기존주거지 서쪽에 인접하여 호놀룰루에서 두 번째의 도심(urban center)으로 조성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④ 자족적 도시로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호놀룰루의 위성도시(bedroom community)가 되었기 때문에 미개발 토지에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여 많은 일자리 제공을 계획하였다.
- ⑤ 새로운 도시의 목표연도는 2025년이며, 6만 5천 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⑥ 동북쪽 펄(Pearl)시에 위치하였던 대학교(University of Hawaii-West Oahu)가 2009년 이전되었다.
- ⑦ 주정부 및 시, KPD는 공동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① 위치 : 오아후(Oahu)섬 전체가 호놀룰루카운티 및 시로 되어 있으며, 카포레이는 섬의 남동쪽에 주도인 호놀룰루는 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② KPD : Kapolei Property Development, James Campbell Company의 자회사이다. James Campbell Company는 영국 북아일랜드의 북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데리(Derry)시에 소재한 제임스 캠벨(James Campbell/1826~1900년)이 설립한 회사이다. 그는 섬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재벌이며 사업가였다.

캐롤라이나포리스트(Unincorporated Community of Carolina Forest)

미국 동남부 동쪽으로 대서양에 접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남동쪽 끝 호리(Horry)카운티의 동부에 위치한 신도시(bedroom community)로 행정구역 면적 약 65.7km²에 인구 약 5천 명(2000년)이며,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1990년 후반 민간기업인 IP¹⁾가 계획하고 대부분 개발하였다. 동남쪽에 접해 있는 마이틀비치(Myrtle Beach)시의 위성도시로 개발되었다.
- ② PUD²⁾ 및 근린주구이론을 적용하였으며, 계획인구는 약 22,000가구에 약 5만 6천 명으로 설정하였다.
- ③ 각 근린주구는 녹도로 연결되며, 근린주구 내부에는 공원을 배치하였다.
- ④ 중앙에 대규모 타운센터³⁾를 배치하고, 도시 내의 완전한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였다.

1998년 초 IP와 호리카운티는 20년 개발계획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카포레이 도시 기본계획도 - 카포레이 신도시는 중앙에서 약간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래 카포레이 전경 도면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르다.



카포레이 신도시 개발계획도

- ① IP : International Paper, 세계에서 가장 큰 펄프 및 종이 제조 회사이다. 테네시주 멤피스시에 본부가 있으며 그룹전체의 총 사업원은 약 51,500명이다.
- ② PUD : Planned Unit Development/계획단위개발
- ③ 타운센터 : Town Center, 약 70,000m²의 쇼핑몰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카포레이 전경 - 오른쪽 반원형 부분이 기존시가지, 신도시 부분은 왼쪽이다.



캐롤라이나포리스트 시가지 전경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 _ 1부

》곳간문화, “ㄷ” 형 전통 가옥

2부 : 탐진강변의 정자, 향교 서원의 전당후재 형 - 2012년 6월 예정
3부 : 사라진 도서의 전통민가 행복마을과 살림집 신한옥 - 2012년 7월 예정
4부 : 하의도의 근대한옥, 목포의 석조건축 - 2012년 8월 예정
5부 : “ㅡ” 형 재실, 외로운 정력각 - 2012년 9월 예정



김지민 교수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
jm7192@paran.com

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지역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건축문화’ 지면을 개설하였으며, 전남지역 전통건축 분야 전문가인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의 원고를 2012년 9월호까지 위와 같은 주제로 5회 연재한다.

전남의 전통가옥은 다른 지방보다 유독 곳간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규모가 큰 상류가옥은 물론 일반 서민이 살던 민가에 이르기까지 곳간이 모두 있다. 특히 안채에 모두 곳간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방에서는 잘 볼 수 없는(특히 민가) 독특한 전남 가옥의 문화다.

그리고 전남지방 ‘ㄷ’ 형 안채의 출현은 17세기 초부터 20세기 초반까지 300여년에 걸쳐 넓게 주로 송갯집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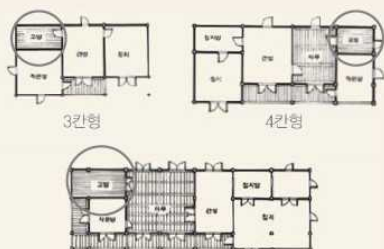
— 본문 중 —



무안 대자주 가옥의 곳간채(20C 초)



하의도 안채 곳간(마래)



정충 방촌 마을의 곳간(고방) 사례

1. 곳간 문화

조선시대의 전통주택, 특히 사대부 가옥에서는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정신적으로 최고의 공간이었다면 현실적으로 그에 버금가는 곳은 바로 ‘곳간’이다. 곳간(庫間)은 물리적으로 ‘곡물을 비롯한 각종 집안 물건을 넣어 두는 방 또는 집’을 일컫는다. 그러나 곳간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를 물리는, 즉 열쇠를 넘겨 주는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1년 먹음 곡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야 말로 집안의 소중한 책무였다. 그러기에 그러한 공간을 건물 일부에 할애하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별도의 건물(곳간채)을 마련하였다.

전남의 전통가옥은 다른 지방보다 유독 곳간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규모가 큰 상류가옥은 물론 일반 서민이 살던 민가에 이르기까지 곳간이 모두 있다. 특히 안채에 모두 곳간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방에서는 잘 볼 수 없는(특히 민가) 독특한 전남 가옥의 문화다. 이는 일찍부터 넓은 농경지를 배경으로 발달한 이 지역 농경의식이 곡식의 소중함과 함께 보관의 귀중함을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남해 도서 지방의 민가에 까지도 안채에 곳간이 있다. 이곳에서는 이곳을 ‘마래’라고 부른다. 마래는 3칸 3실(마래, 안방, 정자) 규모가 작은 민가에 까지도 빠짐없이 보채(안채)에 설치된 주목이 되는 공간이다. 3실 민가의 경우 여러 정향으로 보아 사람이 거주 할 수 있는 2번째 방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공간의 규모도 보통 안방보다 크다. 마래에는 곡식을 담은 큰 독들이 놓여있다. 벼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알곡식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독에 담겨져 있다. 기타 여러 세간도 이곳에 함께 보관되는 고방이 되고 있다. 마래의 기능에서 또 하나 독특한 것은 보통 3대 정도의 조상 위패를 상시적으로 안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내륙지방 사대부 가옥의 사당 역할을 마래가 하고 있다. 그러나 사대부 가옥의 경우 다른 곳(보통 안채 대청)으로 장소 옮겨 기제사를 올리는 것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마래에서 바로 제례를 지낸다. 즉 장소와 행위가 일원화 되어 있다.

규모가 큰 내륙의 상류 가옥 안채에도 예외 없이 곳간이 있다. 주로 대청과 연결되어 당당하게 집안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 ‘ㄷ’ 형 전통가옥

전남지방에는 정면 5칸 이상의 규모가 큰 ‘ㄷ’ 형 한옥이 ‘ㄱ’ 형이나 ‘ㄷ’ 형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즉 일반민들은 ‘ㄷ’ 형을 이 지역의 보편적인 가옥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ㄷ’ 형 가옥의 건립 시기는 구한말이라 할 수 있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무렵으로 불과 50~60년 동안에 집중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ㄷ’ 형 내지는 ‘ㄷ’ 형은 영남, 특히 안동지역에서 조선 중기부터 발달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이다. ‘ㄷ’ 형은 몸채 부가 3칸 이상이고 날개부가 너무 길지않아 집이 풀위가 있고 마당도 아늑하다. 전남지방 ‘ㄷ’ 형 안채의 출현은 17세기 초부터 20세기 초반까지 300여년에 걸쳐 넓게 주로 송갯집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즉 ‘ㄷ’ 형 안채의 건립은 ‘ㅡ’ 형 보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르다.

가옥에서 안채는 영역, 기능, 상징성 등에 있어 다른 어느 건물보다 중심에 있다. 따라서 안채의 자리와 형태는 가옥 전체의 유형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17세기 무렵부터 보이기 시작한 전남지방 ‘ㄷ’ 형 안채는 ‘ㅡ’ 형과 크게 대조가 된다. 특히 종가(宗家)에서의 발달은 어떤 특별한 차별성을 갖기를 바랐던 것인지는 모르다.

1600년대에 지은 ‘ㄷ’ 형 종가가 너무 많아 이를 헐고 ‘ㅡ’ 형으로 새로 지은(1945년) 가옥도 있다. (전남 방촌 위성렬 가옥) 종가의 법도라면 그대로 ‘ㄷ’ 형을 짓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을 것이다. ‘ㅡ’ 형으로 바뀌 지은 까닭은 당시 사회가 요구했던 ‘근대’라는 변화의 요구, 즉 개방과 편리성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전남지방 주요 ‘ㄷ’ 형 안채 가옥

가옥명	소재지	건립연도	건물구성	문화재지정	기타
김선기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341	1600년대 초	안채, 사랑채, 사당, 행랑채	문화재자료 제180호	
윤조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	1776년	안채, 사랑채, 곡간채, 대문간도함 행랑채, 기묘	중요민속자료 제8호	
양동호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569	1780년대	안채, 사랑채	중요민속자료 제152호	
이경휴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367-1	1755년대	안채, 문간채, 창고	전남민속자료 제40호	
윤두서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372	1730년	안채, 이래채, 곡간채, 사당	중요민속자료 제232호	
녹우당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82	1600년대	안채, 사랑채, 행랑채, 기묘, 별묘, 재각, 헛간	사적 제167호	
이군백	해남군 심산면 송정리 2-5	1800년대	안채		
위성렬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92	18C 말 ~ 19C 초	사당, 안채, 사랑채, 헛간채		현존 없음
여산송씨 종가	무안군 무안읍 고칠리 2	1600년대	안채, 사랑채, 대문간 및 창고		현존 없음
이건동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659-1	1600년대	안채, 사랑채, 헛간채	문화재자료 제251호	
정무경	함평군 월안면 왕월리 89	1800년대 초	안채, 사랑채, 헛간채		
정학남	강진군 병영면 박동리	1890년대	안채, 사랑채		
한정식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1917년	안채, 사랑채		현존 없음
이금재	보성군 득량면 오불리 228	1900년대 초	안채, 곡간채, 문간채	중요민속자료 제157호	‘ㄷ’ 형
이용우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580	1908년	문간채, 이래채, 사랑채, 안채, 곡간채	중요민속자료 제163호	‘ㄷ’ 형
이동훈	보성군 북대면 시천리 1구	1910년	안채, 사랑채, 헛간		‘ㄷ’ 형
현충식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 117-3	1902년	안채, 사랑채	전남민속자료 제14호	‘ㄷ’ 형



윤두서 가옥



김선기 가옥



‘ㄷ’ 형 가옥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남구 푸른길 도서관 건립공사는 문화교육특구인 남구의 지역 정점을 형성화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학습공간을 계획하고자 하였고, 더불어 어린이 자료 열람실이 특화되어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공간구성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복합 문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총 사업비는 3,451,728천원이며 설계경기 결과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건축사가, 우수작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 류연창, 김갑동, 박상구 건축사, 가작은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엔스페이스, 은철영 건축사

• 당선작 (주)발해 건축사사무소_ 이주경 건축사

• 우수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 류연창, 김갑동, 박상구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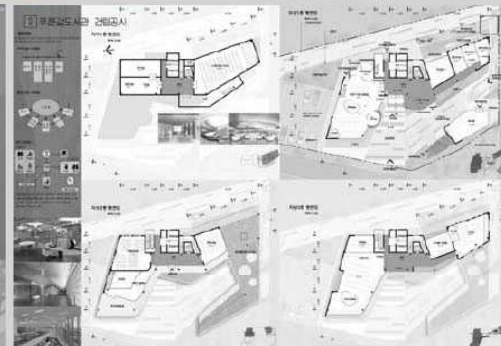
• 가작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엔스페이스, 은철영 건축사

광주광역시 남구 푸른길도서관 건립공사 설계경기



당선작 (주)발해 건축사사무소_ 이주경 건축사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38-13번지 외 5필지
 대지면적 : 2,058.00㎡
 지역지구 :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건축면적 : 404.39㎡
 연면적 : 전체 1,545.39㎡ / 지하 291.44㎡ / 지상 1,253.95㎡
 건폐율 : 32.29%
 용적률 : 60.14%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층수 : 지하 1층, 지상 3층
 최고높이 : 13.9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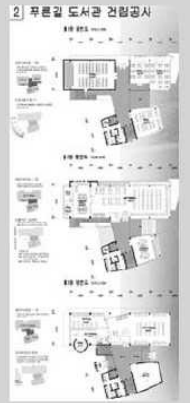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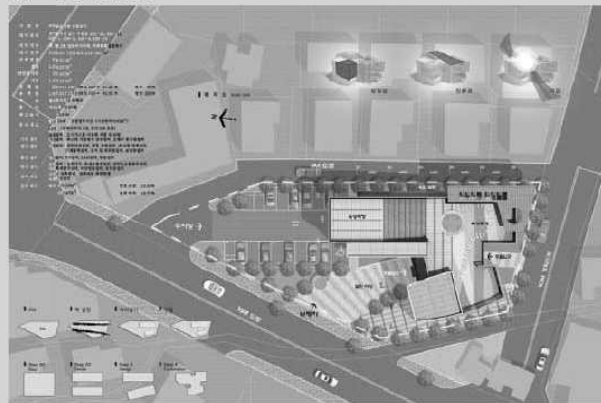


우수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
 _ 류연창, 김갑동, 박상구 건축사

건축면적 : 576.51㎡
 연면적 : 1574.63㎡
 건폐율 : 37.24%
 용적률 : 91.55%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층수 :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 마감 : 밀도 압축판넬, 알루미늄 복합판넬, 노출콘크리트



가작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엔스페이스 _ 은철영 건축사

건축면적 : 817.02㎡
 연면적 : 1565.86㎡
 건폐율 : 52.18%

용적률 : 72.38%
 층수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제3기 광주 건축사 Academy 원장! 양동현 건축사와의 속 깊은 만남

'예술가 양동현 건축사'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영락없는 예술인으로서의 면모를 알 수 있다. 건축을 사랑하고 미술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아티스트 양동현! 그가 가진 건축사로서의 일면(一面)을 후배들이 존경하고 따르기에 광주건축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제3기 건축사 아카데미 원장에도 추대되었다. 이러한 그의 건축·예술인으로서의 삶과 그가 가진 건축철학이 궁금하였기에 지난 4월 26일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를 편집위원들이 방문하였다. 다음은 양동현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기자(이하 기) : 제3기 건축사 아카데미 원장으로서의 추대된 것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동현 건축사(이하 양) : 아카데미란 학문과 예술에 관한 지도적이고 권위 있는 학술원입니다. 제3기 건축사아카데미 원장으로 추대됨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건축사의 품위와 자질을 다듬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문과 기술이 겸비된 학술 정립이 건축사의 자각조건이 아닐까요. 건축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유익한 건축사 아카데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 : 건축사님은 건축인으로서 길과 미술인으로서 길의 선택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축사로서 걸어오신 길을 선택하기까지 과정과 기타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학업 과정/설계입문 과정/개업 후 활동/기타 사항 등)

양 : 48년전 60년대 전통 농경 시대에서 산업 농경 시대에 눈을 떠우는 시기에 고등학교 건축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어린나이에 건축 부하기에는 생소했지만 그림그리기를 좋아해서 선배들의 조언에 힘을 얻어 예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축과를 선택하기에 톡톡히 감응했지요. 당대날 갈기, 망치질 등 실습시간이 참으로 부담했지요. 차라리 그림공부를 할까, 군대나 지원할까, 휴학을 할까... 걱정이 날이 연속이었습니다. 2학년 초 건축제도 시간이었습니디. 서울대학교 건축과 출신이신 윤홍섭 물리선생님께서 건축설계에 대한 강의 내용인 즉, "건축설계는 예술적 감각없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없다. 건축과에서는 그림 그리는 공부부터 하여야 한다"라는 강력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목공에서 예술가 길을 찾은 것입니다. 미술부를 조직하고 건축설계와 접목된 건축설계의 길을 찾기 시작한 것 입니다. 그 후 설계사무소에서의 13년간은 경험과 추억의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사무소는 주로 극장(영화관)을 설계했습니다. 외부디자인은 물론 음향효과에 의한 내부디자인 작업은 미적 감각을 키우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훌륭한 선배를 만나게 되는 고귀한 날들이었습니다. 1980년, 어렵게 건축사에 합격하여 사무소를 개업했지만, 허가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처럼 건축주, 설계업자 의도대로 따르던 시기에서는 계획설계의 중요성과 건축설계의 가치성을 높이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홀로 고민도 많았고 힘들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의 작품활동! 지역에서의 건축사 역할! 등에 대해 술자리에서 열변을 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도시설계, 도시환경을 대학,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토론, 분석 작업 등의 지식을 쌓고 얻어낸 것도 즐거웠습니다.

기 :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확립하신 건축철학에 대해...

양 :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만큼' 있어야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 : 건축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때와 부끄러울 때가 언제인가요.

양 : 건축설계 사무소 운영이 생계수단이 되어 허덕거리는 때는 재미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지요. 건축설계를 의뢰받아 볼과 한 장의 스케치가 서로의 의사소통이 되어 건축 전체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스케치 한 장에 건축주의 사업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입니다. 건축사는 스케치를 승판관 하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담 없는 상태에서 생각대로 자유롭게 그리는 스케치가 행운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기 :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신다면?

양 : 1990년도 광주시 작품상을 받은 주택과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에 있는 남도 전통문화 전당계획입니다. 주택설계 특히 전통 가족의 주택 설계는 소홀히 생각 할 수 없는 작업과정이라 부담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부부, 자녀와 함께 거주한 3세대 주택은 가족 구성, 성격, 행동, 라이프 사이클 관리 측면에서 심호흡, 설득, 협의의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공간, 부부생활 공간, 자녀들의 활동 공간의 적절한 배치는 상호간에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스킵형을 도입, 중간층에 부부공간을 두고, 1층에 부모님, 2층에 자녀공간을 두어 세대간 만족하게 협의했던 성과의 작품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기 :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양 : 건축주는 건축사 작품활동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큼니다. 건축사들은 다양한 건축주를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은 우리들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세계에 맞지 않은 우리를 장애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광주은행학교 안재인 수녀님과 대화에서 얻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입니다.

공사 기공식날입니다. "식소는 시공자보다 설계자가 먼저입니다." 광주 YWCA 전회장님 조 고아라 여사님은 건축계 질서를 확고하게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진료실 방송시설 배관 배선을 빠뜨린 것입니다. 바닥타일을 까고 배관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무선방송 시스템이 개발된 것 입니다. 원장선생님께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무선방송의 편리성을 설명했더니 역시 "건축사는 천재들입니다."라며 웃지 못 할 일이 있었지요.

기 : 사회봉사활동이 있으시면...

양 : 교육문화 활동인 유네스코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70년대 건축전문 서적을 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춘추서점에서 접한 수입 일본월간지 신건축이 최고 인기였으며, 각 협회지가 고작이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교류 센터에서 독일, 프랑스 건축예술잡지를 구입하는 것들이 유익했습니다. 몇 달 전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다문화가족 문화사업 시찰기회에 그들과 대화에서 언어, 음식, 어린이 교육 등 생활의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주거환경 문제도 배움을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기 : 선배 건축사들에게 거는 기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양 : 지방 건축사는 작품의 기회, 경제적 어려움, 건축 환경의 저하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도시 작가를 선호할 때는 화도 나지요. 그러나 지금은 피해의식과 욕조리는 모방습관에서 탈피할 때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는 유명해지기는 어려우나 지도적인 위치 혹은 훌륭한 건축사로 기억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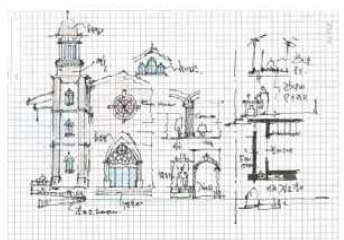
기 : 건축사로서 앞으로의 계획

양 : 후배 건축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길까 고민입니다. 전시적이고 왜곡된 전시시설은 지양하고, 역사 흐름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지하 박물관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그 작품에 저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지요. 뜻있는 분들과 기회가 있을 거라 기도하며, 수천에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취재 - 정리 : 박신남 건축사기자 psn0188@hanmail.net
강동영 건축사기자 archikang@paran.com



광주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를 양동현 건축사



직접 스케치한 오치동 성당
-1990년도 광주시 작품상



남도 전통문화전당 계획안



부모님을 모시는 부부,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3세대 주택-1990년도 광주시 작품상 수상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문화

사랑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1,200,000원
- 하단광고 : 500,000원
- 하단1/2광고 : 300,000원
- 하단1/3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 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 특색기고 •

건축을 말하다

김예루 학생기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지난 4월 KBS 2TV의 주말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서 '남자 건축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방영 하였다. 주말 예능프로그램이기에 건축은 무관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시선에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 재산 증식으로만 생각되어 오던 집이라는 개념이 이번 계기를 통해 나뉘는 나라 모든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의미를 지닐 기회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다.

故 정기용 건축사가 말하듯 건축사는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요구를 공간으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을 만드는 노가다꾼이 아니다. 그들은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비취진 건축사들의 모습이 다시 한 번 재조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예비 건축사로서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사명감이 어깨를 누르는 듯 했다. 모든 것들과 교감하면서도 일상적이어야 하며, 그들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진정한 건축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 특색기고 •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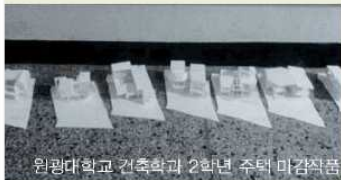
정세영 학생기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원광대학교 건축학과는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자신의 Design을 뽐내기 위하여 모형과 패널 작업을 완료 하였다. 이 '마감'이라는 시간까지 학생들은 밤을 새고 씻지 못하고 일주일간 계속 같은 옷을 입고 '설계실'에서 졸음을 자면서 설계에 열중을 하였다.

그렇지만 '마감'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주관적인 디자인 공간에 치우쳐 잘못되어버린 '패널'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실망한 사람들도 간혹 볼 수가 있다. 이 학생들은 '다음번엔 잘해야 해' 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금방 일어나고 한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 본다. 건축학자가 '마감'이라는 힘든 시간 말고 진정으로 힘이 들어 하는 시간이 있을까?

건축학과 내에 있는 후배 동기 선배들에게 Design을 하는 것 말고 또 힘들어 하는 것 없다고 물어보았다. 하는 것은 없는데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건축학과라는 말이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건축학과에 과제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건축학과에 과제는 단지 핑계일 뿐인 것이다. 그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자퇴, 휴학, 전과하는 학생들도 더러웠다. 건축학과생과 다른 학과생의 커 thù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핑계라고 할까? 고학년이 된 지금도 친구들은 핑계 좀 대지 말고 만나 주라고 한다. 그러나 그 핑계가 머지않아 빛을 발하리라 기대한다. 미래는 이 처절한 노력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란 믿는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와 더불어 다른 학교 건축학과들도 많이 힘들지만 파이팅을 외쳤으면 하는 마음이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주택 마감작품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비좁은 건축설계 스튜디오 문제있다

- 건축학과 작업 공간 너무 협소해, 최소 1,050㎡ 필요해(현재 약 500㎡ 사용)



현재 전북대학교 건축과에는 건축학을 전공한 학생이 3,45학번으로 3개 학년이 남아있고, 통합된 교육과정의 건축공학과에서도 2010학년도부터 설계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설계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공간의 크기는 다른 강의를 진행하는 공간에 비해 크다. 학생들이 컴퓨터나 손으로 도면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모형제작실, 설계비평실, 캐드출력실 등을 포함하여 최소 1,050㎡의 공간이

필요하다.(타 대학 평균치인 30명 정원 150㎡ 기준)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은 그 수가 너무 적다. '공간비용최선제'라는 공간배정규정에 의해 학과 내 학생, 교수, 대학원생들의 인원수에 따라 공간의 수를 규정하고,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학생들의 수가 적은 건축과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사용하는데 금전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또한 배정해주는 공간의 사용용도는 강의실, 연구실, 실험실, 대학원생실, 학과사무실, 학생회의실 등인데 그중 설계스튜디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학생들이 24시간 이용해야 하는 설계스튜디오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건축학과 학생들은 매년 하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른 강의실로 모든 가구를 들고 단체로 이사를 하는 것이 연례행사라 되었고,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모형을 제작할 공간이 협소한 것은 고사하고 설계실 출입시간까지도 제약을 받아야 하며, 방대한 쓰레기도 수시로 내용을 수 없애 난감한 상황이다.

지나해 학과 사무실에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초과 공간 사용에 대한 이익 신청서를 본부의 기획과로 제출한 바 있다.

전북대학교 건축학과는 현재 2011학년도 1학기 설계실 운영상황과 같이 3,45학번 설계실 425㎡, 모형제작실 74㎡로 약 500㎡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전북대 학생기자 두원정 학생기자 dhj11sgkh@hanmail.net

• 이 지역 건축학계 동적 •

>> 조선대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에 추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에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가 추대되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와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 등이 건축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건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광주 지역 건축계를 대표하는 조용준 교수가 회장으로 추대됨에 따라 매년 개최되고 있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김지민 교수, 회장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가 지난 3월 16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으로 선임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 5월 4일 조선대학교에서 건축학부 회의실에서 첫 이사회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디자인 캠프 개최'와 '광주 도시재생 워크숍 개최', '전남의 건축역사 발간' 등 여러 안건을 의결 하였으며 향후 교육 및 학술 세미나 등의 정책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사무총장, 한국주거학회 부회장에 선임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인 동아인제대학교 건축과 남승진 교수가 한국주거학회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한국주거학회는 1989년 설립되어 주거관련분야의 전문가(대교수, 건축사, 기업인 등)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한국전통건축에서 아파트문화에 이르기까지 주거관련 전반적인 분야에 관한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승진 교수의 부회장 임기는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주거학회 국제파트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신입교수 소개



- 성명 : 김경원
- 전공 및 강의과목 : 건축설계 / 현대건축론
- 학력 : MA Urban Design, Newcastle University, UK, 2010년
DipArch, Westminster University, UK, 2005년
BA(hons) Architecture, Newcastle University, UK, 2001년
- 자격 : RIBA (영국왕립건축사)



- 성명 : 신용주
- 전공 및 강의과목 : 한국건축사 / 동양건축사 / 건축설계기초
- 학력 : 조선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박사) 2009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석사) 2003년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2001년



- 성명 : 조규민
- 전공 및 강의과목 :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건설경영학, 건축Capstone Design
-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박사) 2009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석사) 2005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건축공학전공) 졸업 2003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러시아 건축문화에 대한 특강 개최

- 오는 5월 31일 오후 4시 공대 2호관 4층 첨단강의실에서 열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CNU 목요 특강으로 오는 5월 31일 목요일 오후 4시 공대 2호관 4층 첨단강의실에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건축과 모스크바건축대학 75주년 작품전에 관한 특강을 개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80년대 이후 전개된 현대건축에 큰 영향을 준 후대마스에 대한 소개와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모스크바 건축대학 학생들의 작품에 관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건축학전공(5년제), 2012 Open Lecture

일시	장소	강사	주제
5. 11 (금) 오후 1시 30분	조선대 제4공학관 17층 대형세미나실	문진호 대표-(주)종합건축사 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	DMP 최근작
5. 24 (목) 오후 1시 30분		하남수 대표-(주)종합건축사 사무소 토론건축	토론건축 21세기 대응전략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2012년 1학기 초청강연회 열려

- 오는 5월 29일에는 건축사사무소 유오에스 정기정 대표 초청강연회 개최



광주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지난 5월 3일 중앙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2012년 1학기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사로 JNK Architects 전병목 대표를 초청하여 건축개념과 구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JNK Architects에서 진행해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건축의 개념과 형태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구조와 형태 그리고 현재 유망하고 있는 건축의 입면 형태와 스타일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현재 건축의 시점과 사회 현황 등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서 좋은 강연회가 되었다.

한편, 오는 5월 29일에는 건축사사무소 유오에스 정기정 대표를 초청하여 젊은 건축가와 건축 작업이란 주제로 중앙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강연회를 개최한다.

광주건축사회, 제3기 건축사 Academy 본격 개강

— 정동채 前 문광부 장관을 시작으로 류춘수 건축사 등 유명인사 강연 마련



제3기 건축사 Academy 개강강좌
— 여수세계박람회 건축물 투어

28일 세무, 회계 강좌까지 총 4강좌로 진행된다.

앞서 개강 강좌로는 지난 4월 14일 여수엑스포 건축물 탐방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제3기 건축사 Academy의 세부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건축사 회원 및 가족, 사무소 직원 등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란다.

강좌	강의일정	과 목(강좌주제)	강사
1강좌	4.14(토) 08:30~17:30	여수엑스포 건축물 탐방	진행하였음
2강좌	5.17(목) 19:00~21:00	교양강좌(광주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건축)	정동채(前 문화관광부-장관)
3강좌	5.31(목) 19:00~21:00	전문강좌(류춘수 건축의 지역성과 세계성)	류춘수(주)이공 건축-건축사
4강좌	6.14(목) 19:00~21:00	전문강좌(국정 건축의 공간적 특성과 전개과정)	임종업(인하대학교-교수)
5강좌	6.28(목) 19:00~21:00	세무, 회계(건축사의 세무 회계)	황용현(천지회계법인-회계사)

건축문화사랑 제2기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발대식 개최

— 전임 편집인에 대한 감사패 수여 및 신임 편집위원, 학생기자 위촉장 수여



본지 건축문화사랑이 지난 5월 2일, 제2기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발대식을 개최하고 제2기 편집 구성원들의 본격적인 활동을 독려하였다.

광주건축사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본지 대표발행인인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과 제1기 편집인인 박흥근 건축사(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전임 편집인인 박흥근 건축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더불어 제1기 편집위원을 역임한 이순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미가온)의 논설위원 위촉과 신임 편집위원 위촉 강동영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라움, 김미영 건축사-(주)원우기술개발 건축사사무소), 학생기자 위촉 강현제-순천대 외 8인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심상봉 발행인은 "건축인과 일반인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2기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편집인인 서재형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선)는 "전임 편집인의 바통을 잘 이어 받아 향후 2년간 본지가 이 지역 건축문화 선도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제8회 본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우승

—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열린 제8회 축구대회서 우승 트로피 거머쥐어



준우승에는 서울 송파건축사축구동회가 차지하였다.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열린 제8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에서 광주건축사축구동회가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전건축사축구동호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각 시·도를 대표하는 건축사축구동호회 선수 3~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첫째 날 예선과 둘째 날 본선을 치른 결과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가 우승을 차지하였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세미나 개최

— 오는 6월 8일 오후 1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06호, 207호 세미나실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BF 인증시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권역별 찾아가는 세미나'가 오는 6월 8일 오후 1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06호, 207호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세미나 세부일정을 다음과 같으며 관심 있는 독자들은 많은 참여바란다.

시 간		내 용
13:30~14:00	30분	• 세미나 개최 장소 도착 및 접수
14:00~14:20	20분	• 주무기관(국토해양부) - BF 인증제도 소개
14:20~15:10	50분	• 강사 : 한국장애인개발원(김인순 부장/경영속 팀장) - BF 인증제도 개요 및 건축물 인증사례
15:10~15:20	10분	• 휴식시간
15:20~16:10	50분	• 강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박신원 책임연구원) - 지역 및 여객시설 등 BF 인증사례
16:10~16:30	20분	• BF인증제도 관련 질의응답

2012 제7회 한국농어촌건축대전 공모 열려

— 초대작가부문, 준공건축물 부문, 계획건축부문 등 각 부문별 공모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최영규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사)한국농촌건축학회가 한국농어촌도시와 공동주관으로 '2012 제7회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을 공모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은 농어촌지역의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모색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육산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초대작가부문(5월 7일~6월 13일), 준공건축부문(5월 7일 ~ 6월 12일), 계획건축부문(5월 7일~7월 10일)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특히 농어촌건축대전의 대상(1작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과 부상으로 상금 500만원과 해외여행을, 최우수상(2작품)은 각각 (사)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상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부상으로 상금 300만원과 해외여행을, 우수상(4작품)은 각각 (사)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상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부상으로 상금 200만원과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건축대전 홈페이지(http://arch.ekr.or.kr)'를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2년 광주폴리 감독에 독일 출신 건축사 '니콜라우스 허쉬'

— 지난 5월 4일, 비엔날레 지원센터서 임명장 수여식과 기자회견 가져



허쉬 감독 작품 - documentation centre hinzer

올해 광주폴리 감독에 독일 출신의 건축사 니콜라우스 허쉬(Niklaus Hirsch)가 임명되었다. 니콜라우스 허쉬 감독은 지난 5월 3일 광주를 방문하여, 4일 광주비엔날레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과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여 감독으로서의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허쉬 감독은 "광주지역을 넘어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폴리 프로젝트의 감독직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쉬 감독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하는 건축사이자 '슈테델슐레(Städelschule)'의 건축대학장, '포르티쿠스 미술관(Portikus)'의 디렉터이다.

2002년에 세계 건축가상을 수상한 허쉬의 주요 작품으로는 드레스덴의 '유대교 회당(synagogue)', '보켄하머 데모 극장', '유나이티드네이션스플라자'와 '유리피안 쿤스트할레' 등이 있다.

허쉬 감독은 5월 6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며 폴리 위치 및 작가 선정에 필요한 리서치 및 기획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폴리는 2011년도에 광주 도심재생 및 세계적 디자인 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되어 광주 동구 옛염성터를 중심으로 10개의 조형물과 동구 푸른길 농장다리 1개의 조형물 등 총 11개의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며 작년 한 해 6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광주폴리는 앞으로 폴리의 위치 및 작가 선정, 디자인 및 시공 등의 과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올해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투어 및 건축물탐방 참가자 모집

■ 목적

- 건축사의 창작의욕 고취 및 건축전공 학생들의 학구열 제고
- 일반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 증진
- 지역건축문화 발전 도모

■ 일시 :

2012년 6월 23일 (토) 09:00~20:00

■ 장소 :

- 영남권역
- 부산 중구 광복로 가로재생프로젝트
- 두레마을-영화의 전당(부산국제영화제 전관관)
- 아다산전망대(2011 부산다운 건축상-대상)
- 문화광복(2008 부산다운 건축상-대상)
- 오륙도 가원(2011 부산다운 건축상 일반부문-우수상)
- 백운교공원 공중화장실(2011 부산다운 건축상 공공부문-특별상)

■ 세부 일정 및 내용

시 간	장 소
09:00 ~ 09:30	광주역 (출) ~ 아미산 전망대 (현)
09:30 ~ 10:10	아미산전망대 (현) / 관광
10:10 ~ 11:50	광복로 가로재생프로젝트 (현) / 관광
11:50 ~ 13:30	오륙도 가원 (현) / 관광 / 중식
13:30 ~ 13:40	백운교 공원 (현) / 관광
13:40 ~ 15:00	광복길 재생지역 건축-문화광복 (현) / 관광
15:00 ~ 16:30	두레마을-영화의 전당 (현) / 관광
16:30 ~ 20:00	두레마을-영화의 전당 (출) ~ 광주역 (차)

■ 참가 대상 :

건축사 및 조경사사무소 직원, 교수 및 학생, 공무원 및 일반시민

■ 참가 인원 :

80명 이내-선착순(학생 40인, 일반인 40인)

■ 참가 비 :

10,000원/1인, 일반 = 20,000원/1인 (중식 포함) - (한복불가)

■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055-107-015582) (사)광주건축사협회 (010-3571-3571)

■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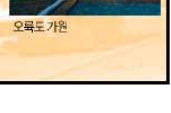
기간 : 2012.5.14 (토) 09:00 ~ 5.31 (목) 18:00

접수 : 전화(062-521-0025, 8) 및

메일 접수(광주건축사회 대표메일 : gkirk@empal.com)

■ 주최 : 광주광역시

■ 주관 : (사)광주건축사협회, 건축문화사랑 신문



전북지역 건축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 개최

— 전주시건축사회 주관, 오는 6월 16일 완주군 도립미술관 앞 운동장에서



지난 2011년 동산초에서 개최된 건축유관기관 체육대회

전라북도 전주시건축사회 주관으로 2012 건축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가 오는 6월 16일 토요일 완주군 소재 도립미술관 앞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전주시건축사회 김남중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청, 김제시청, 완주군청 건축직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전북지역 건축 관련 기관단체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 한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로 떠올라

— 국토해양부, 전북대를 2년 연속 한옥설계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으로 선정



올해 2월 초 전북대에서 열린 2011년 한옥설계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식

전라북도가 한옥 분야 전문인력 양성 최고 지역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에 2년 연속으로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전북대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한옥설계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에 2년 연속으로 선정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교육비용 1억 3000여 만 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이달부터 4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6월부터는 다양한 한옥 설계 분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정규 설계 과목을 비롯해 한옥전문가 특강, 현장실습 및 답사 등 다양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된다.

전북대는 이에 앞서 지난해 개소한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를 중심으로 건축사 또는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자를 대상으로 평일 야간반과 주말 충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국토해양부로부터 84억 원을 지원 받아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 '목조건축 전문인력양성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은 한옥과 목조건축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 전주시, 대형건축물 주차장 유료화때 교통부담금 감면

— 대영상가의 매출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 매우 적어 유료와 실행 미지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교통유발부담금 감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의 골자는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건물 바닥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10%를 감면하고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시 5%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전주시내 3,000㎡ 이상 대형 건축물은 2000여 곳으로 이들은 조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 건물 주차장 유료와 실행은 미지수다. 교통유발부담금이 1㎡ 당 700원으로 대형 상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비해 매우 적어 구애해 10%의 감면 혜택 때문에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대형 건축주들의 동향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교통유발부담금 적용도 조례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관내 대형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벌인다

— 따라서 대형 건축물 대해 교통영향분석 비롯해 개선대책 이행실태 지도점검 예정

지난 5월 8일, 전주시는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건축물에 대해 교통영향분석을 비롯해 개선대책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예식장 등 관내 대형건축물 9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교통체계 운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에 의한 것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외에 불법 구조변경, 주차장 등의 타용도 사용,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신고 여부 확인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전주시 점검반은 차량 진출입 동선 및 주변 가로망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과 시설보전 등을 점검한 뒤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미이행시 사업주에게 이행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주차장 등의 불법용도변경 적발시 해당 구청 건축부서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제48회 전라남도미술대전 개최 요강

2012년도 제48회 전라남도미술대전 (전국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출품부문: 9개부문
 - 한국화, 서양화, 서예(전각·서각포함), 사군재(문인화), 조각, 사진, 공예, 건축, 시각디자인
- 출품자격: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출품규격 (건축 부문만 공제)
 - 가로90cm×세로180cm 이내 패넌
 - 모형설치대: 가로100cm×세로100cm×높이100cm 이내
 - ※ 공작작품은 3인 이내로 제작
- 접수기간 — 6. 5(화)(10:00~17:00) 목포문화예술회관
 - (전남 목포시 용해동 924-1 ☎(061-270-8487)
- 출품료: 5만원(1점), ※ 2점 출품자는 8만원
- 출품수: 1인(팀)당 2점 이내
- 원서요구: 예종전남도연합회, 시군예종지회, 전남도청 문화예술과, 시군 문화(예술)관광과
 - ※ 출품원서 다운로드: 전남도청홈페이지 www.jeollanam.go.kr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차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단체): 한국예종전라남도연합회 ☎062351-7506, FAX(062351-7507)

주최: 전라남도 주관: 한국예종전라남도연합회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 지회, 춘계학술대회 개최해

— 지난 5월 11일, 광주시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의 현황과 과제 주제로...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 지회는 지난 5월 11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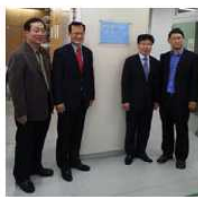
이날 학술대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으며, 국토해양부 유병권 도시정책관의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과 경관개선'이란 주제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 연구위원의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의 현

황과 과제'라는 주제 등 총 4건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시간에서도 성공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우영 교수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안용환 과장,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상준 교수, 광주발전연구원 박준필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광주시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광주광역시, 광주시 도시계획정보 지원센터 시범 운영

— 국비 6억 원 등 총 16억여 원의 사업비 투입해 2014년 상반기 완료 계획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추진해 온 도시계획정보 체계(kupis) 구축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차질 없는 도시계획 정보센터 개소를 위해 지난 4월 18일 지원센터를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수많은 고시 조서 및 도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개발한 표준시스템에 의해 자치단체별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국비 6억 원 등 총 1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1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게 되며, 구축자료는 시청 및 각 구청이 보관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자료로 약 1만천여 건에 이른다.

광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표준시스템을 도입해 최종 완료시점인 2014년 이전까지 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자치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 사전 문제점을 보완 하는 등 최대한 활성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일반시민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용적률, 건폐율,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는 물론 도시계획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토지이용의 체계적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1년 앞두고...

— 현재 공정을 55%, 세계 전통정원 및 주요 시설 연내 완공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1년 남긴 시점에서 박람회장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측은 '박람회장 조성공사'가 4월 기준으로 큰나무가 10,000주 이상 식재, 주차장포장 공정을 55%,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 60%, 수목원 및 습지조성공사 55% 등 전체적으로 55%의 공정을 보여며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식재해 온 큰나무는 4월까지 마무리 지었고, 작은 나무는 연말까지 식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며, 옥상에 잔디를 깔아 정원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 지붕건축 개념이 도입된 국제습지센터는 올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츰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핵심콘텐츠인 세계 각국의 전통정원 조성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박람회장에는 영국정원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미국정원 등 세계 전통정원 11곳 한창 조성중이다. 정원박람회장에 조성될 세계 전통정원은 10개국, 실제 정원은 인도, 케냐 등 8국, 실외정원은 호주, 태국 등 10곳으로 모두 28곳의 외국정원이 될 때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지구'의 정원 순천만' 주제로 순천만 일원에서 열린다.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전남 '예술마루' 개관하다

— 여수 시전동 망마산 자락 위치, 지역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독일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 등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건축사 도미니크 페로가 지은 '예술마루'가 지난 5월 8일 완공되어 10일부터 개관하였다.

'예술마루'는 지역 한 기업이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여수 문화예술공간으로 바다를 품고 있는 망마산과 그 앞산인 장도 일원 70만㎡에 21만평에 조성되었다.

예술마루는 문화예술의 너울(파도)이 가득 넘치고, 전통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란 뜻을 담고 있다. 파도 물결 등 건축형태와 어울리고 문화예술공간이란 장소적 특징을 잘 드러낸다는 점을 고려해 여수문화예술공원의 명칭으로 선정되었다.

건축물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102석 규모의 대극장과 302석의 소극장, 체험위주의 미술을 즐길 수 있는 691㎡의 전시장 및 미래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 홍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기탁

- 지난 30일, 전주시청 방문해 장학금 500만원 전달



전북도 전주시건축사회는 지난 30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전주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500만원을 인재육성재단에 기탁하였다. 이 자리에는 전주시건축사회 김남중 회장을 비롯하여 전북건축사회 이성열 회장, 송하진 전주시장, 황의록 전주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김남중 회장은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취지에서 자발적인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 건축계 동정

* 변경(사무소명, 소재지 변경)

- 안천수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누리 /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21, 401호
- 윤재훈 건축사 / 위 랜드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20 조광빌딩 2층

* 변경(소재지 변경)

- 정호림 건축사 / 동림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오월로 45-1 (1층)
- 최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Esse / 광주 서구 상무오월로 45-1 (1층)
- 박재홍 건축사 / (주)홍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89 4층 408호
- 전 한 건축사 / 열린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오월로 13

전남 건축계 동정

* 입회

- 양갑열 건축사 / 한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봉화2길 14
- 김용민 건축사 / 이엠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대석길 61

* 전입(광주 → 전남)

- 정태호 건축사 / (주)세우리건설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768-1

* 변경(소재지 변경)

- 이하준 건축사 / 대양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37-2
- 박수현 건축사 / 광양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회양현로 39

>> 광주 · 전남 · 전북지역 5월 지역축제 안내

- 5. 11 (금) ~ 5. 16 (수)까지 2012 여수국제법선축제 -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법선회장 해상 일원
- 5. 12 (토) ~ 5. 20 (일)까지 제5회 전주모토포스탈빌 -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5. 16 (수) ~ 5. 20 (일)까지 제38회 보성다향제 - 전남 보성군 한국차소리문화공원 일원
- 5. 18 (금) ~ 5. 20 (일)까지 2012 전라북도민체육대회 - 전북 군산시 일명종합운동장
- 5. 18 (금) ~ 5. 20 (일)까지 2012 순천낙안민속문화축제 -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 5. 25 (금) ~ 5. 26 (토)까지 제10회 조선대학교 장미축제 -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장미원
- 5. 25 (금) ~ 5. 27 (일)까지 제14회 장성흥길동축제 - 전남 장성군 흥길동 테마파크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443호, 2012-04-12)

1. 개정이유

주택법(이하 '법')의 분할 건설·공급과 '세대별 증축범위 확대 허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12.12.26 공포, '12.27 시행 예정')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이행무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1) 주택법(이하 '법')의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공구의 기준, 주택법(이하 '법')의 규율 적용기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안 제4조의3, 안 제15조의2제항·제2항, 안 별표)
- 2) 분할 분양으로 입주시기를 달리하거나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동별 사용감사가 가능하도록 추가 규정(안 제34조제항)
- 3)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사업승인 사항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8조의2, 안제8조제3항)
- 4)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수합하여야 할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을 규정(안 제47조제2)
- 5) 사업승인권자가 도시계획 교통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행위하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안 제47조제5항)
- 6)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증가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를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12조·제5조·제24조·제40조)
- 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결과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일반 사업주체가 미이행할 시 보증금반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2항, 안 제62조의11)
- 8) 위탁관리리치 특수목적법인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종관관리하는 자산 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사무실을 포함하여 산정(안 제10조제3항)
- 9) 대한주택보증기 보증금사 등의 소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고유사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07조제3항 제4항 신설)

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1) 주택법(이하 '법')의 분할 건설 공급 관련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공사착수 신고규정을 보완하고, 리모델링형 위 허가신청서류를 정비(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20조제3항제5호다목)
- 2)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류 중 매도장구 협의사실 증명서류 제출을 제외(안 제9조제2항제3호의2)
- 3) 기타 사업주체 변경 시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58호 2012-04-30)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설비를 설치하고, 피뢰설비 설치대상에 공작물을 포함하며, 방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수설비 설치(안 제1/소제2 신설)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취약지구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수판 등 차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피뢰설비 설치 대상에 공작물 포함(안 제20조)

낙뢰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뢰의 우려가 큰 장식물, 기념물, 광고탑, 광고판, 첩단 등의 공작물 중 높이 20미터 이상인 공작물과 건축물에 설치되어 건축물과 공작물의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공작물에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22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검토를 자문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에너지관리공단 외에 한국에너지공단과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명시함

라. 방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 설치기준 보완(안 제23조제3항)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로 인한 분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 또는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함

'석면해제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설계·시공·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제정」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법령소식(751면, 750면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 춘 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심상봉, 유본근, 이성열
편집인: 서재형
편집자: 권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장관석,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박성윤, 전영호,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행물: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심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기원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전남 여수들 세계 속의 해일도시로...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해양국가로, 거듭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건축문화

신분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금: 1만 원부터
-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문 형 록 | 반석기초이앤씨(주) 100만 원
광주건축사협회 50만 원

건축문화 원고모집

건축문화사상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건/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판권/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형: 광주건축사회(Tel: 062-521-0025)

E-mail: gjkra@empa.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는 작가의 사진과 사서소명, 직책 및 연락처를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이금미 초교 도서관사서
광주 서구 삼촌동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에서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별다른 관심을 두진 않았는데 그곳을 다녀온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조금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스페인 하면 투우, 플라멩고, 가우디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 가까운 친구들의 가족들과 함께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 서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만은 이미 여행이 시작됐다.

우리 일행은 13일간의 여행을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라는 나라부터 시작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떠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 드디어 여행길을 들어서게 되었다. 아무리 힘들고 고된 비행시간 일지라도 여행을 떠나는 설레는 가슴을 어찌 진정시킬 수 있겠나. 아무리 난 딸과 함께 집 떠나면 고

생이라는 문구를 새기며 스페인으로 갔다.

스페인은 잘 알려진 대로 인구의 90%가 가톨릭 신자인데도 유럽의 어느 나라 보다도 이슬람의 흔적이 도처에 짙게 남아 있는 나라다. 모든 유적은 이슬람과 가톨릭의 공존이 확연하다. 기아 마드리드의 '알 알바라 궁전' 이라든가, 옛 모슬렘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돼 있는 중세도시 톨레도 대성당 등이 이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형식이다.

스페인은 17개주 58개 지방자치국인 정열에 나라 인조량이 많아 태양의 나라라고 부르는 스페인은 유네스코에 지정된 인류 문화유산이 40개나 있어 '세계 제2의 관광의 나라'라고 했다. 고딕스런 석사를 잘 간직한 탓일 것이다.

영원 중에 가장 생크나는 곳! 스페인 관광이었다.

날이 밝기도 전에 그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몇 시간을 이동하여 당도한 곳이 스페인 광장이었다.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날씨가 너무나 좋았다. 항상 10도에서 15도 사이를 유지해 주었고 하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파랗고 이쁘지... 이 모든 것이 축복이라 생각해야겠다.

1929년 엑스포 때 본 중심시설로 사용했던 스페인광장은 마리아 루이사 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미술람과 가톨릭 양식이 므서 된 건물로써 오늘날 광장에는 정부청사가 들어가 있고, 반원의 형태로 둘러싸여진 거대한 건물이 있으며 아래 부분은 여러 칸으로 분류되어 스페인 모든 도시의 지도와 유명한 그림이 그려진 특색 있는 타일로 장식되어 있었다.

해설가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고 얘기를 해도 다른 말은 다 귓전으로 흘러 보내고 김태희가 CF를 찍었다는 그 한마디만 생생하게 생각한다. 우리 또한 CF화보를 찍기 위해 이쭉자쭉 자료를 야단을 이었다. 그곳은 한마디로 말해 어느 누가 셔터를 눌러도 화보이고 그림이었다. 내 얼굴에 스치는 바람이 얼마나 상쾌한지 지금도 느껴진 듯하다. 이른 아침부터 화보 촬영도 화보 화하고 힐하고 배도 고프네 점심식사 시간에 다른 음식을 보는 순간 일행들의 얼굴이 '죽음'이 나온다. 즐거운 점심시간이여야 하는데...

부슬부슬한 쌀 같은 밀가루를 밑에 깔고 닭과 토마토, 오이, 당근, 고명을 얹어 만든 카레 섞인 닭찜 요리인데 음식이름이 ‘꾸스꾸스’였던가 아무튼 비위에 맞지 않아 라면 먹는 사람, 고추장 발라서 그런 대로 먹겠다는 사람 등으로 ‘집니오면 고생’이란 말을 실감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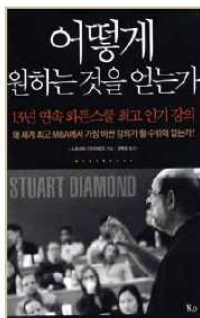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일행 중 한 분이 스페인의 역사는 살육의 기록으로 점철돼 있지만 피의 역사 속에서도 콜럼버스와 세르반테스, 피카소를 배출한 나라이며 이 모든 것을 잘 보존하여 관광객으로 발전한 것이 대단하다고 하셨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도 삼투적이지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였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된 스페인 여행은 내 인생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고이 접어 뒀다가 한 번쯤 펼쳐서 되새겨 보면 생활 속에 율동유가 될 것이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저자: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김태훈 옮김 / 출판:8.0

남병선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
가리는 제복처럼 사람의 신
을 리를 자극하는 문구가 또 있
을까? 나 또한 책의 제목에
매료되어 책을 접하게 되었
으며, 별 기대감 없이 책을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나서 문득 한 단어를
대한 생각이 밀려들게 느꼈
다. 바로 협상이라는 다소
무거운 단어를 그 어떤 책보
다도 이해하기 쉽고, 비록
문화가 다른 서구문화를 여
로 하였던 만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예로 경계심을 자연스럽게 허무는 것 같다. 사람은 살면서 추구하는 목적만 다를 뿐 원하는 것이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책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으로만 읽지 말고 당장 실행하라'고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평생치 흥분과 활을 가능한 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 또한 상대방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협상은 '상대방의 기본을 맞추고 충분한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조금씩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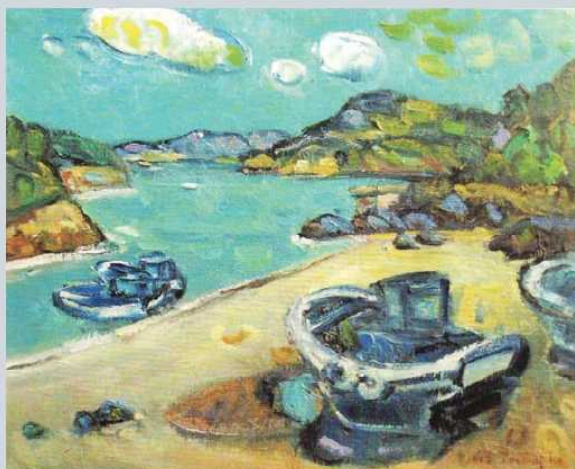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저자는 자신이 협상전략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의 경험을 통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중

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하나의 방안을 찾아서 잘 활용해본다면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는 현재와 같은 무한 경쟁사회에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고, 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나에게 힘을 다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평소에 알지 못하고 지나쳤었던 일들과 안될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일들이 이 책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시켜주고 동시에 그 영향은 성공하지 못할 현실을 성공하게 만드는 결과를 이루었다.

아직 이 책을 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협상과정에서 이 책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4553cm x 379cm 캔버스 위 유채

법성포의 봄기운

작년에 풍어로 들쭉이던 법성포
뒤편 돌아 백수에서 바라보니 고향길은 편안함이 느껴진다

바다도 하늘도 볼기운이 가득한데
 먼 뱃길뒤 쉬는 배들이 엄마품에 안긴 아이처럼 자고 있다

임정구 건축사작 /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정 (광주)



세대공감

너희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본다.
그 천국의 맛을, 너희도 알았니?
모든 것이 변했지만 아직도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촬영자: 천경훈 건축사기자 作

MICRO PILE 공법

기존건물의 기초보강, 굴착장비의 불가능한 협소한 지역 시공시,
연약지반, 사면의 보강등에 적합한 공법

시공사례



서울 연천초등학교



일산 양일중학교



장성 문화예술회관



광화문 햄머링 동상



부천 우편 편집국

2012년 5월 31일

건축사 자격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www.kira.or.kr

기존 제도

교육이수 ▶ 예비시험 ▶ 경력관리 ▶ 자격시험 ▶ 자격취득 ▶ 건축사업무

※ 학력 실무경력요건이 건축에 관한 전문성 부족해도 단기간 기계적 학습을 통해 자격취득가능

변경 제도

교육이수 ▶ 실무수련 ▶ 자격시험 ▶ 자격취득 ▶ 자격등록 ▶ 실무교육 ▶ 갱신등록

실무수련 제도 신설

3년 이상 건축사 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실무수련 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

실무수련 대상자

- ▶ 건축학인정 학위과정 5년제 졸업자 및 8학기 이상 이수자
- ▶ 건축대학원 : 건축전공 학사인 경우 2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비전공 학사인 경우 4학기 이상 이수자

자격시험제도 변경

기 존

교육이수 ▶ 예비시험 ▶ 경력관리 ▶ 자격시험

변 경

교육이수 ▶ 실무수련 ▶ 자격시험

※ 현행 건축사예비시험 :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

※ 현 예비시험 합격자 :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전형 실시

건축사자격 등록제도 신설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사자격을 등록 해야함

기 존

건축사업무수행 : 건축사업무신고 (지자체)

변 경

건축사업무수행 : 건축사자격을 등록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업수행 : 건축사자격등록 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지자체)

-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 ※ 소속건축사 : 건축사업무수행이 가능한 협회에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 대상자

- ▶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모든 건축사
- ▶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건축사도 2013. 5. 30까지 등록하여야 함.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 신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사항으로 5년 내 60시간 이수

실무교육 실시기관

- ▶ 대한건축사협회

실무교육 종류

- ▶ 윤리교육
- ▶ 전문교육
- ▶ 자기개발

실무교육 방법

- ▶ 집체교육
- ▶ 온라인교육
- ▶ 활동 참여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제도 신설

건축사자격 등록 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5년) 건축사 자격을 갱신등록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